

목포·신안 상생교류 활발... 통합 분위기 확산

도·농상생교류 운동 보고회 자생단체 자매결연 등 활기

목포시가 신안군과 도농상생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는 등 시·군통합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목포시는 22일 시청에서 도농상생교류 운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양 시군의 민간단체 자매결연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목포시 23개 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동 자매결연 결과와 수범사례를 소개하고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목포시는 도농지역 간 상생교류를 통해 무안반도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아가 목포·신안지역 경쟁력 강화와 관광·문화·경제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농상생교류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무안반도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목포시 23개 동과 신안군 14개 읍면간 자매결연을 맺었

다. 양 시군의 자생단체들은 각 자매결연지의 지역 특산물이나 협약기념 전자 벽시계를 제작해 선물을 상호 교환하기도 했다.

목포시가 개최한 '2023 시민과의 대화'에는 자매결연지역 주민들이 초청돼 시 관광지를 둘러보는 등 친선 대화의 장을 가졌다.

자생조직 대표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하는 등 주민 주도의 교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 동별 신안군과 도농교류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양 시군은 목포 유달산 봄 축제, 신안 지도읍 선도 수선화 축제 등 대표 지역 축제에 상호 방문하고 농촌일손돕기 등을 포함한 도농상생교류 활동을 발굴해 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 나갈 계획이다. 삼학동에서는 오는 4월 안좌면사무소에 목포의 시화인 백목련을 식수하고 목포·신안 통합 기원을 담은 타임캡슐을 매설할 예정이다.

만호동과 하의면은 오는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추모행사와 2024년 1월 김



목포시(시장 박홍률)와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도농상생교류를 통한 시·군통합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목포시 제공

대중 탄생 100주년 행사에 상호 방문해 역사적 동질감을 공유할 예정이다.

유달동은 자연면 자연부락(마을)과 통·리간 1대 1 결연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이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중도면 취약계층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신안군 청소년을 위한 나눔과 배려도

실천할 계획이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신안이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민간주도로 통합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이라며 "자매결연지와 교류를 통해 관광,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관계를 맺고 통합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베이비 마사지 교실' 호응 나주시 빛가람건강지원센터



나주시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오감터치 베이비 마사지 교실'에 초보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센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생후 3-8개월이 된 아기 성장발육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아기 맞춤형 마사지 교실이다.

상반기(3-6월), 하반기(9-11월)로 나뉘어 전문강사 지도 아래 산모와 아기 15쌍을 대상으로 주 1회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마사지와 더불어 육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제 막 육아가 시작된 엄마들에게 유용한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 친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베이비 마사지 교실과 더불어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공예 아기용품 만들기 등 '아기마중 DIY 임신부 태교 교실', 숲 산책과 명상을 통해 건강한 태교를 돕는 '숲태교 부부 출산교실' 등을 3-11월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 등록, 영양제(엽산·철분제) 지원, 임신부 주차증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유축기 대여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콜라보 음악 콘텐츠 무대 '화제' 동신대-BJ케빈UP

동신대학교 재학생들이 아프리카TV BJ케빈UP(서수길 CBO)와 콜라보 음악 콘텐츠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동신대는 지난 22일 대정광장에서 아프리카TV BJ케빈UP 음악 콘텐츠 '찾아가는 락(樂)케스 특집'을 진행했다.

BJ케빈UP과 BJ대성이형의 진행으로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오프닝 댄스, 뮤지컬·실용음악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창작곡과 커버곡 무대가 이어졌다.

슬로우비타, 코다브릿지, 안예슬피, 온달 등 아프리카TV 음악 BJ들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동신대학교는 지난 22일 대정광장에서 아프리카TV BJ케빈UP의 음악 콘텐츠 '찾아가는 락(樂)케스 특집' 행사를 펼쳤다. 동신대 제공

나주 송월동 적극행정 호평 품관원 나주사무소 담장 허물어

나주시 송월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소장 박종희) 건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장 일부가 허물어지면서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담장이 철거된 자리에는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한 통행로가 새롭게 조성됐기 때문이다.

23일 송월동에 따르면 담장 정비는 농업경영체 등록, 공익직불제 신청 등으로 양 기관을 번갈아 방문해왔던 주민들의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건물 사이 담장이 있어 기관 출입을 위해서는 정문으로 먼 거리 동선을 오고 가야 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은 주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 나주시 소규모 민원처리사업과 연계해 담장 일부 철거와 통행로 조성 공사를 완료했다.

송월동은 최근 농관원과 통행로 개설 축하식을 가졌다.

박종희 소장은 "공익직불제 신청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이동이 수월해졌다고 만족해 한다"고 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목포 환경미화원 근무 만족도 '최하위'

최현주 시의원 대책 수립 촉구

목포시 환경미화원의 근무만족도가 전남 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가운데 근무여건 개선과 산재예방 등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의당 소속 목포시의회 최현주(원산·연산·용해동) 의원은 지난 22일 목포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목포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실태조사에서 목포시 환경미화원의 근무만족도는 전남 5개 시 지자체 중 최하위이고, 22개 시·군 중 19번째였다.

위생과 안전문제도 최하위점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현주 목포시의원



목포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 환경미화원 결원 수는 10명이 넘고 있다. 1명이 1.7명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수집 운반작업의 경우 3인 1조 작업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게 목포시 현실이지만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량안전장치와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호스버스트 체브벨브, 안전멈춤바(발 사용), 배기관 방향전환 등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필수적인 안전장치 설치가 요구된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 의원은 23일 "검증된 보호장구를 구입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세척시설과 휴게시설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용품과 용구가 있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춰 필요한 용품과 용구도 구비해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일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남의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 5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수건강검진을 환경미화원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사전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인재육성기금 300만원 기탁 나주시전문건설협회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나주시전문건설협의회(회장 류수길)에서 인재육성기금 300만원을 나주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에도 인재육성기금 200만원을 재단에 기탁한 바 있다. 류수길 회장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시전문건설협의회는 지난 2018년 출범해 건설기술 개발 및 육성·발전,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 재해 예방 등에 힘써오고 있다.

공로를 인정받아 류 회장은 올해 2월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장학금 지원 등 재단의 인재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